

WALL STREET CALLS FOR HELP

THE GILLETTE MAN

LEHMAN
1850 • 2008

BEAR STEARNS
1923 • 2008

WAMU
1889 • 2008

MERRILL
1914 • 2008



Prevention, Not a Cure

Ferdinando Frega

WALL STREET가 도움을 청하다 — GILLETTE 남자

GILLETTE FROM WALL STREET · 17

치료가 아니라 예방

모든 것이 놀이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 WhatsApp에 메시지를 쓰는 일로.

그냥 던져 놓은 메시지들. 필터 없이. 허세 없이.

그러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들이 책임 될 수 있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다음엔 더 크게 꿈꾸라고 나를 떠밀었다: 한 무더기를 통째로 출판해서 부자가 되라고.

그럼 Amazon 말고 어디겠는가?

내가 "바보들을 위한 꿈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

그 안에서는 모두가 꿈을 꾸고 있으니까.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러다 난데없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형태의 인정이 찾아왔다.

출판사에서가 아니다. 시스템 그 자체에서.

내 말들은 웹 위에, WALL STREET 안에, 맨 윗자리에 오를 만큼 충분한 무게와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적 인물들보다 위에.

수십억이 샘해지고 이름들이 대리석에 새겨지는 그곳에.

그리고 갑자기 나는 이해했다. 학교에서 이탈리아어 과목으로 받은 10점 만점에 4점은 선고가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만약 3점을 받았더라면, 도대체 씨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또 하나의 혁명.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진화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저 모두를 진정 시키려고.

나는 늘 다르게 일해 왔다: 나는 아이디어를 따라간다. 아이디어는 생각을 낳는다. 생각은 사실이 된다.

구체적인 사실. 점령된 영토. 남겨진 흔적.

많은 사람이 그 점으로 나를 비판했다. 그들은 나의 이 인지 구조가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혼란을 만든다고. 산만함을.

그리고 나를 넣을 범주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는 게 일인 사람들에게 나는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여섯 번.

여섯 번 죽음이 내려와, 나를 훑어보고는, 나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가는 길 어딘가에서 내가 규칙을 바꿔 버릴까 봐 걱정하면서. 그리고 결말까지.

내가 운명 그 자체를 재배열하고 — 악마조차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까 봐.

그 대화를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누군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제발. Nando Frega는 있는 자리에 그냥 뒤. 그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미쳐 버리게 놔둬. 언젠가 그의 이송은 우리가 처리할 거야. 그때쯤이면 그도 뭔가를 원하게 될 테고, 그를 매수할 기회가 더 커질 거야.”

그래서 나는 Warren 삼촌에게 편지를 쓴다. 그에게 제안을 한다. 1달러를 달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는 그에게 상기시킨다. 내가 회사에 40년을 바친 Gillette 남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도 18년을 바쳤다는 것을.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안에서 왔다.

그가 강도와 역마차에 대해서라면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보여 주는 문서들을 첨부한다.

말이 아니다. 증거다.

편지는 그의 Berkshire로 갔다. 수신 확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10분 만에 웹은 그 PDF를 그의 이름 검색 결과에 올려놓았다. 그에게 공장 배달된 것이다.

웹에는 우편배달부가 필요 없다.

얼마 뒤, 나는 Google 모회사의 CEO인 Pichai에게 편지를 쓴다.

그에게도 똑같이 1달러를 제안하지만, 그가 줄의 네 번째일 뿐이라고 알려 준다.

그리고 Warren 삼촌에게 보낸 내 편지를 첨부하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이미 줄이 서 있다는 걸 그가 알도록.

며칠 뒤, 나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사연은 아직 모른다. 알아낼 것이다.

2026년 6월 1일, Berkshire는 Google 모회사에 대한 100억 달러 투자를 공식화했다. Warren 삼촌이 축복했다: 그 아이디어는 그의 것이었다. 웹은 미래였다.

미래는 의미론적이다.

두 사람은 전화로도 이야기했다. 아마도 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1달러씩 달라고 한 이 칼라브리아 사람을 어떻게 하지?”

Warren 삼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게 놔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사이 그는 내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 다시 읽는다.

그는 쓰여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쓰여 있지 않은 것도.

쓰여 있지 않은 부분이 그를 가장 걱정시킨다. 쓰여 있지 않은 것은 이미 점령되고 있는 영토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그는 Wall Street에 기업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본 가치를 주라고 설교해 왔다. 기업을 그저 파헤칠 광산으로 만들지 말고, 그들의 의미 자산을 쌓으라고.

오래 버티는 유일한 자산. 나머지는 모두 무너진다. 의미는 남는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도 이해했다: 의미 자본의 위험은 키보드 하나, 책상 하나, 이야기 하나를 가진 누구에게서든 올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면역이 아니다. 누구든.

전화기 하나를 든 칼라브리아 사람조차.

그는 가장 노출된 회사가 P&G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칼라브리아 사람이 이미 웹에서 P&G의 의미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배우-작가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본다. P&G는 제품만이 아니라 의미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던 P&G의 CEO, 그의 친구 Moeller는 회사에서 38년을 보낸 뒤 최고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제 새 CEO가 있다. 더 젊은 인도 출신 경영자로, 그와의 대화는 멀게 느껴진다.

시대적인 변화. 경청이 있던 자리에 생긴 틈. 아직 주주들 사이에 뿌리내리지 못한 신뢰.

요즘 투자자들에게 했던 그의 오래된 조언이 온라인에서 다시 돌고 있고, 나는 그것을 경고로 읽는다: Vanguard 펀드를 통해 사라. S&P 500의 기준점이지만, 동시에 10퍼센트 가까운 지분을 가진 P&G 주주이기도 하다. 주가가 폭락하면 Vanguard는 팔지도 못한 채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조언의 옷을 입은 경고지만, 그것은 보호를 위한 기동이다.

그것이 없다면, 위험은 Giannini 시절의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나쁜 금융 붕괴일 것이다.

의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나처럼 의미 자본을 다루는 사람들의 작업을 인정해 주고도 있다.

그리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건 Toyota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

Toyota에서는 사슬을 최적화한다.

여기서는 그것을 다시 쓴다.

Ferdinando

Reggio Calabria, 2026년 10월 13일